

## 盲人用 엽서발행

- 일본 -

点字워드프로세서 등의 개발에 따라 눈이 부자유스러운 사람이 서류나 편지 등을 활자로 용이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되었으나 우편엽서는 表, 裏, 土, 下가 눈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식별이 안되기 때문에 「우편엽서의 표면·裏面, 상·하를 식별할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요망이 있어서 우정성에서는 1990년 11월 1일에 새로운 엽서를 발행 했다.

일본盲人會連合(사회복지법인)등 우편엽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전일본 紙製品工業組合 등으로부터 눈이 부자유스러운 사람들에 있어서 식별하기 쉽고 안전하고, 사용하기 쉬운 우편엽서로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좋겠는가 하는 의견을 들어서

검토한 결과, 우편엽서의 표면 왼쪽 아래 부분에 텔레폰 카드처럼 잘라서 눈이 부자유스러운 사람이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매우체국은 전국의 집배우체국(5,300局)이다.

그리고 눈이 부자유스러운 사람(대리인 신청도 可)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우체국에 전화 등에 의해 우편엽서를 구입코자 한다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날 자택을 방문해서 판매하는 서비스를 한다. 또한 연하엽서에 대하여도 통상엽서와 마찬가지로 실시토록하고 있다.

(우표·문통진흥관계자료집 1991.3)